

##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특정한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대학생과 아동을 대상으로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발휘되는 자기효율성의 관계론 규명함으로써 하나의 성격 특성이나 전체적 구성개념으로서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측정하고 특정한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을 위해 운전, 영어회화 그리고 골프에 대한 자기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동시에 실험적 조작을 가한후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미래의 성적에 대한 예측과 노력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하였다. 연구 2에서는 국민학교 5학년 아동들의 경우에도 대학생들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측정하고 과제 특정적 자기효율성으로서 언어과제와 공간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과제가 대학생과 아동에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두 집단에서의 동일한 결과는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의 관련여부를 보다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하나의 성격특성으로서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아동의 다양한 성격특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통제소재를 측정하고 성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족강도 검사를 사용하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아동의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과 아동 모두에서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은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과 일관성있게 상관을 지니고 있었고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미래에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보다 바람직한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은 특정한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바탕으로 발휘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성격특성으로서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높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강도가 높은, 바람직한 가족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특정한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과 수행과의 관계에서 자기효율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성공적 수행과 관계없이 더 높은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더 바람직한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최근에 와서 Bandura(1977)가 제안한 자기효율성(self-efficacy) 개념은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성격 특성이나 전체적 구성개

념으로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andura(1986)는 한번 높아진 개인의 자기효율성은 일반화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는 하였지만, 여기에서의 일반화는 완전히 상이한 과제나 상황으로의 일반화가 아니라, 대단히 유사한 상황 즉 공포행동이면 다른 양태의 공포행동으로 일반화될 수 있을 뿐 운동과제나 학습과제와 같은 상이한 과제로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조적으로 Sherer와 그 동료들(1982)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지각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고 과거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개인의 경험은 개인이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일반적인 기대를 형성하게 하고 그것은 일반적인 자기효율성으로서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그들은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general self-efficacy)을 매일의 생활에서 목표를 성취하고 역경을 극복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고, 목표행동을 기꺼이 시작하려는 정도, 목표행동을 끝마치기 위하여 기꺼이 노력하는 정도 및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인내하는 정도를 바탕으로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에는 개인차가 존재하고 새로운 상황에서의 개인의 숙달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정되었다.

유사하게 Tipton과 Worthington(1984)은 개인이 갖는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도전적이고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상황에 걸쳐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기대나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상황이 분명하게 정의되고 개인에게 친숙할 때는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이 발휘되기 쉬우나 상황이 애매하고 친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제안하고 높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갖는

사람들은 낮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갖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오래 인내한다고 밝혔다.

Sherer등이나 Tipton과 Worthington의 주장대로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자기에게로 귀인되는 중요한 모든 성공과 실패의 합성물로서 비교적 안정되게 존재하는 개인의 특성이라면, 개인은 어떤 과제에 대해서든 처음에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가지고 과제에 임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제특정적인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Shelton(1990)과 같은 연구자는 자기효율성을 연구한 문헌들을 개관하고 특정한 과제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율성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은 자신의 전반적 능력에 대한 인지에 해당하는 어떤 전체적 구성개념인 반면,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발휘되는 자기효율성은 구체적 수행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군대의 특수부대 자원자를 모집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과정에서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연구한 Eden과 Kinnar(1991)는 높은 자기효율성을 갖는 개인들이 낮은 자기효율성을 갖는 개인들보다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하고 높은 위험이 따르는 특수부대에 자원하려는 더 큰 의지를 나타내었고 실제의 자원과정에서도 더 높은 자원율을 나타내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높은 개인들은 낮은 개인들보다 실험조작의 영향을 더 적게 받는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높은 사람들보다는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Sherer등이 제작한 자기효율성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한 Woodruff과 Cashman(1993)은 교육/직업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서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측정하려고 한 Sherer등의 자기효율성 척도는 유용하다고 밝히고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경영학과 관련된 특정한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경영학 개론 수업에서 A학점을 기대하는 대학생들이 B학점을 기대하는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므로써 높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낮은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였다. Lennings(1994)도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더 많은 중간단계를 보고한다고 밝히고 통제소재, 성취동기, 자아통제 및 충동성과 같은 성격 특성들 중에서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은 목표 설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예언자라고 제안하였다.

일반적 자기효율성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일관성 있게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개인의 다양한 성격특성들과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다. Sherer등(1982)은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통제소재, 통제능력, 자아강도, 대인간 능력 그리고 자아존중감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Lennings(1994)도 통제소재, 성취동기, 자아통제, 충동성, 감각추구와 일반적 자기효율성과의 관계 사이에 충동성을 제외하고 유의한 상관성을 보고하였다. 특히 Lennings는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일반적 자기효율성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고등학교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자기효율성 점수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herer등이 제작한 자기효율성 척도를 사용하여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특정한 과제에 대한 과제특징적 자기효율성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3개의 과제에 대한 과제특징적 자기효율성을 측정하고 그들의 중간고사 성적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학기말 성적의 예측과 노력 정도에 대한 계획에서 일반적 자기효율성 상하집단간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 2에서는 국민학교 아동들의 경우에도 대학생들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5학년 아동들 대상으로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언어과제 및 공간과제에 대한 과제특징적 자기효율성을 측정한다. 특정한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생들과는 상이한 과제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과제특징적 자기효율성의 관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규명하려고 한다. 또한 언어과제와 공간과제를 실제로 수행하게 하여 상하집단으로 나누고 과제특징적 자기효율성 상하집단과 조합하여 자기효율성과 수행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 자기효율성은 높고 수행수준은 낮은 집단, 자기효율성은 낮으나 수행수준이 높은 집단 및 자기효율성과 수행수준이 모두 낮은 4개의 집단 사이에 일반적 자기효율성,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통제소재, 가족강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성격검사의 하위요인들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개인의 과제특징적 자기효율성과 수행과의 관계에서, 자기효율성과 수행수준이 모두 높거나 낮은 집단보다 높은 자기효율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수행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거나 낮은 자기효율성을 지니면서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아동들 사이에는 일반적 자기효율성이나 성격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Gist와 Mitchell(1992)은 개인이 수행해야 할 과

제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 과제의 특성과 개인 자신의 상황적 자원이나 제한점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하게 되고 그것을 기초로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제안하였기 때문에 네개의 집단은 교육적 의미를 갖는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 1

### 연구 방법

연구대상. 대전의 C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표집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두차례의 검사실시 중 한번이라도 누락된 학생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포함된 학생은 남학생 152명과 여학생 75명으로 전체 227명이었다. 그 중 1학년과 2학년을 포함하는 저학년은 163명 그리고 3학년과 4학년으로 구성되는 고학년은 64명이었다. 또한 남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1.09(SD=2.66)세 그리고 여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9.70(SD=1.22)세였다.

#### 검사도구

##### ① 일반적 자기효율성 검사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herer 등의 자기효율성 척도 중 일반적 자기효율성 하위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Sherer 등의 자기효율성 척도는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학구적/직업적 영역에 대한 일반적 자기효율성 하위척도와 6개 문항의 사회적 영역에 대한 사회적 자기효율성 하위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이 척도는 원래 Likert type의 14점 척도였으나 Sherer와 Adams(1983)에 의해서 5점 척도로 사용되었고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7점 척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Sherer 등의 척도는 두 가지 하위척도의 점수를

합산하여 개인의 자기효율성 점수를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 자기효율성 하위척도가 개인의 수행 성취에 초점을 맞춘 반면, 사회적 자기효율성 하위척도가 대인관계를 평정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에서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 자기효율성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상에 응답하게 하여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 점수를 계산하였다. 척도의 Cronbach alpha 신뢰도 계수는 0.87이었다.

##### ② 특정한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 검사

개인의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운전, 영어회화, 그리고 골프를 학습하는 상황 각각에 대해 행동을 기꺼이 시작하는 정도, 지속하는 정도 및 역경에서의 인내를 묻는 질문을 각각 3개씩 전체 9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시작, 지속, 그리고 인내에 해당하는 문항 예는 “나는 운전을 배우려고 결정하면 그것을 곧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운전을 배우려고 계획한다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운전을 배우다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나는 쉽게 포기해 버린다.”와 같다. 운전, 영어회화, 그리고 골프 자기효율성 척도의 Cronbach alpha 신뢰도 계수는 각각 0.89, 0.88 그리고 0.82였다.

##### ③ 성적예측과 노력정도의 측정을 위한 검사

학기말 심리학 개론 시험에서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성적을 A, B 그리고 C 및 그 이하 중에서 선택하게 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와 학기말 시험을 위해 노력할 정도를 10에서 100까지의 등간척도 상에 표시하게 하였다. 10은 1로 20은 2와 같은 방식으로 점수화하고 학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주어 점수에 반영하였다.

절차. 검사 첫날, 일반적 자기효율성 검사와 3가지 과제에 대한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일주일 후, 학생들의 심리학 개론 중간고사 성적을 A, B 그리고 C학점으로 조작하고 학생들이 믿을 수 있도록 담당교수의 도움을 받아 노란 봉투에 넣어 나누어준 다음 학기말 심리학 개론 성적에 대한 예측과 노력정도를 묻는 질문을 실시하였다. 질문지를 회수한 직후, 노란 봉투 속에 들어있는 중간시험 성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양해를 구하였다.

### 결과 및 논의

1)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3가지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의 관계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운전, 영어회화 그리고 골프에 대한 자기효율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각각 0.

54( $p < .001$ ), 0.57( $p < .05$ ) 및 0.61( $p < .001$ )로서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을 발견한 Woodruff과 Cashman (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특정한 과제에 대해 발휘되는 개인의 자기효율성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바탕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Shelton(1994)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 볼수 있다.

2) 성과 학년에 따른 자기효율성  
성과 학년에 따라 일반적 자기효율성 점수와 3가지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는 표 1과 같고 그것의

표 1. 성과 학년에 따른 자기효율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		여	
		저학년	고학년	저학년	고학년
일반적	M	4.92	5.30	4.71	4.60
자기효율성	SD	0.92	0.89	0.83	0.93
골프	M	5.32	5.71	5.13	5.07
자기효율성	SD	1.00	0.85	0.94	0.97
영어회화	M	5.22	5.61	5.34	5.08
자기효율성	SD	1.09	0.91	1.09	1.25
운전	M	5.85	6.06	5.57	5.62
자기효율성	SD	0.99	0.98	0.95	0.83

표 2. 성과 학년에 따른 MANOVA 결과

	Wilks's	df	F
성	0.9415	4/218	3.38*
학년	0.9923	4/218	0.42
성 × 학년	0.9776	4/218	1.24

\* $p < .01$

MANOVA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성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어느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단일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영어회화에 대한 자기효율성을 제외하고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운전 및 골프에 대한 자기효율성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었다. Scheffe 검증결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운전 및 골프에 대해 일관성있게 더 높은 자기효율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Lennings(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할 뿐아니라 직업과 정치에 대한 자기효율성에서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자기효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장휘숙(199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우리 문화가 갖는 아동양육방식이나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다양한 과제 수행에서 더 높은 자기효율성을 갖도록 격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성들이 더 높은 일반적 혹은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운전을 하고 골프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낮은 자기효율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의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단기간의 생활경험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아니라 대학생 정도의 연령에서는 이미 하나의 성격특성으로 확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개인의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은 연령증가와 함께 높아진다는 Zimmerman과 Martinez-Ponz(1989)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일반적 자기효율성은 장기간의 누적적 경험의 결과이기 때문에 한두번의 성공·실패 경험에 의해 쉽게 변화될

표 3. 성과 학년에 따른 단일변량분석 결과(F 값)

	성	학년	성 * 학년
일반적 자기효율성	10.15*	0.89	2.90
운전 자기효율성	5.34*	0.74	0.28
영어회화 자기효율성	1.45	0.13	3.55
골프 자기효율성	7.37**	1.10	2.15

\* $p < .05$ , \*\* $p < .01$

표 4. 일반적 자기효율성 상하집단과 성적조작수준에 따른 학기말 성적의 예측과 노력정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성적조작수준		일반적 자기효율성 상집단			일반적 자기효율성 하집단		
		A	B	C	A	B	C
학기말 성적에 대한 예측	M	39.84	41.31	37.66	35.80	31.37	34.08
	SD	8.97	9.44	7.44	9.59	11.88	9.44
학기말 노력정도	M	9.21	9.24	9.21	8.43	8.48	8.97
	SD	1.13	1.18	0.78	1.30	1.59	0.98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3)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성적조작 수준에 따른  
학기말 성적에 대한 예측과 노력정도

일반적 자기효율성 점수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고 심리학 개론과목의 중간시험 성적을 실험적으로 A, B, 그리고 C의 3가지 점수로 조작했을 때, 학기말 심리학 개론 성적에 대한 예측과 부여할 노력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는 표 4와 같고 각각에 대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와 표 6에 의하면, 학기말 심리학 개론 성적에 대한 예측과 노력부여의 정도에서 일반적 자기효율성 수준에 있어서만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다. Scheffe 검증결과, 일반적 자기효율성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의 학기말 심리학 개론 성적과 더 많은 정도의 노력을 투자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경영학 개론 수업에서 A학점을 기대하는 학생들이 B학점을 기대하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지닌다는 Woodruff와 Cashman(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높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갖는 사람들이 낮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갖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한다는 Tipton과 Worthington(198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학기말 심리학 개론 성적에 대한 예측이나 노력정도에 대한 중간고사 성적조작의 유의한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일반적 자기효율성은 조작체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Eden과 Kinnar(199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사람들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사람들보다 동년배 집단의 영향을 더 적게 받는 것처럼 (Mossholder, Bedeian & Armenakis, 1982), 높은

표 5. 학기말 성적예측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일반적 자기효율성(A)	1	1610.487	1610.487	17.86*
성적조작 수준(B)	2	132.687	66.343	0.47
A × B	2	378.697	198.348	2.10
오차	183	16504.153	90.186	
전체	188	18562.952		

\* $p < .001$

표 6. 학기말 노력정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일반적 자기효율성(A)	1	16.511	16.511	11.90*
성적조작 수준(B)	2	2.768	1.384	1.00
A × B	2	3.039	1.519	1.10
오차	183	253.920	1.387	
전체	188	275.238		

\* $p < .001$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갖는 사람들은 실험처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으나 낮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갖는 사람들은 실험처치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자기효율성은 조작체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적조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서 최근의 후한 성적 평가 방식이 일반적 자기효율성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A나 B학점을 예측하도록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이한 실험적 조작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반적 자기효율성의 역할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연구 2

### 연구방법

연구대상. 대전 시내에 위치한 S 국민학교 5학년 4학급을 표집하였다. 한가지 검사라도 받지 않았거나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아동들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포함된 아동들은 남학생 96명, 여학생 71명으로서 전체 검사대상자는 167명이었다.

#### 검사도구

① 일반적 자기효율성 검사 아동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동일하게 Sherer등이 제작한 일반적 자기효율성 하위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예비검사 결과, 7점 척도에 대해 응답하는 것은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판단되어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여 아동의 일반적 자기효율성 점수를 측정하였다. 척도의 Cronbach alpha 신뢰도 계수는 0.80이었다.

② 특정한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 검사 아동

의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개의 언어과제와 10개의 공간과제를 사용하여 언어적 자기효율성과 공간적 자기효율성을 각각 측정하였다. 30개의 언어과제와 공간과제의 각 문제들을 하나씩 차례로 아동들에게 보여준 다음 (2초동안 제시), 각각에 대해 “당신은 이 문제를 풀 자신이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십니까?”라고 묻고 확신하는 정도를 10에서 100까지의 등간척도 상에 표시하게 하였다. 아동의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 점수는 대학생들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점수화되었다. 언어적 자기효율성 검사와 공간적 자기효율성 검사의 Cronbach alpha 신뢰도 계수는 각각 0.95 및 0.90이었다.

③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통제소재 및 성격검사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검사(김태련과 장희숙, 1994 참조), Weiner(1974)의 성취동기 검사 그리고 Nowiciki와 Strickland(1973)의 통제소재 검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아동의 성격검사를 위해 6가지 요인(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사려성, 사회성)으로 구성된 정범모(1990)의 국민학생용 표준화 인성 검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검사의 Cronbach alpha 신뢰도 계수는 자아존중감 검사 0.78, 성취동기 검사 0.67, 그리고 통제소재 검사 0.70이었다.

④ 수행검사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언어과제와 공간과제를 그대로 사용하여 아동들에게 실제로 풀도록 하였다. 언어과제는 차재호(1989)의 중학생용 적성진단 지능검사에서 비슷한 말과 반대말을 찾는 문항 중 난이도가 낮은 20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공간과제는 한국행동과학 연구소(1993)의 중학생용 지능검사에서 공간지각 능력을 알아보는 지각력 검사에서 난이도가 낮은 10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비검사에 의해 약 50%의 아동이 성공하고 약 50%의 아동이 실패하는 문제를 선정하기 위해 중학생용 지능검사를



활용하였으며 언어과제와 공간과제 각각에 대한 수행시간을 3분으로 하였다.

⑤ 가족강도 검사 가족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기 위해 Stinnett와 DeFrain(1985)에 의해 개발된 가족강도 검사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가족을 나타낸다. 척도의 Cronbach alpha 신뢰도 계수는 0.87이었다.

절차. 검사는 3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 주에 일반적 자기효율성 검사와 자아존중감 검사, 성취동기 검사 및 통제소재 검사를 실시하고(실시시간 약40분) 가족강도 검사를 아동들에게 나누어 주어 어머니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번째 주에 언어과제와 공간과제에 대한 아동의 과제특징적 자기효율성을 측정하고 두가지 과제를 직접 풀도록 하였다. 언어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은 5개의 단어가 쓰여져 있는 55×40cm의 쉐트지 20장을 한장씩 2초동안 차례로 보여주고 비슷한 말이나 반대말에 해당하는 두개의 단어를, 찾아낼 수 있다고 확인하는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공간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도 언어과제와 동일하게 5개의 도형이 그려진 55×40cm의 쉐트지 10장을 각각 2초 동안 차례로 보여주고 질문지의 원편에 그려진 보기 도형과 다른 모양의 도형 한개를 찾아낼 수 있다고 확인하는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과제특징적 자기효율성을 측정하기 전에 언어과제와 공간과제에 익숙될 수 있도록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와 유사한 언어 및 공간문제를 사용하여 푸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수행검사로서, 과제특징적 자기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언어과제와 공간과제를 질문지로 만들어 아동들이 실제로 풀게 하였다. 두가지 과제의 수행시간은 각기 3분씩으로 전체 검사시간은 약20분이 소요되었다. 세번째 주에 아동용 성격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실시

시간은 40분 정도였다.

## 결과 및 논의

### 1)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과제특징적 자기효율성의 관계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언어적 및 공간적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의 상관은 각각 0.16( $p<.05$ ), 0.36 ( $p<.001$ )으로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남녀 아동 사이에 유의한 성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동의 일반적 자기효율성 점수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고 언어적, 공간적 자기효율성 점수를 t 검증한 결과, 각각  $t=2.36(p<.05)$ ,  $t=3.91(p<.001)$ 로서 일반적 자기효율성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언어적 및 공간적 자기효율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아동의 경우에도 대학생들과 동일하게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언어과제와 공간과제에 대한 과제특징적 자기효율성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개념으로 개인의 과제특징적 자기효율성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바탕으로 발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언어적, 공간적 자기효율성에서 유의한 성차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대학생들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국민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언어과제와 수학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을 연구한 Linn과 Petersen(1985) 및 Hyde와 Linn(1988)의 결과와 일치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춘기에 도달하지 않은 국민학교 아동들은 아직까지 성차와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결과로 해석된다.

### 2)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성격특성들 사이의 관계

아동의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통제소재, 성격검사의 하위요인들 및 가족

강도 사이의 상호상관은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아동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은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통제소재와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었고 아동용 성격검사 요인 중 지배성, 안정성, 사려성, 사회성 요인 및 가족강도 사이에서도 유의한 상호상관이 발견되었다.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및 통제소재에 있어서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Sherer등, 1982; Woodruff와 Cashman, 1993; Lennings, 1993; 장휘숙, 1994)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성격검사 요인 중 활동성과 충동성을 제외하고 사려성, 사회성, 지배성, 그리고 안정성 순으로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아동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에 대

해 가장 큰 설명량을 갖는 성격검사 요인은 사려성이었고 그 다음이 사회성이었다.

가족강도는 일반적 자기효율성, 자아존중감, 및 통제소재와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었고 성격검사의 요인들 중 안정성, 충동성, 사려성, 및 사회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중앙치들 기준으로 가족강도를 상하로 나누고 t 검증한 결과, 가족강도 상집단의 아동들이 하집단의 아동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일반적 자기효율성( $t=2.60, p<.01$ )을 지니고 있었다. 가족구성원들이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빈번한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 아끼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강한 가족들은 아동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은 물론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내재적 통제소재를 갖게 하며 높은 사려성과

표 7. 일반적 자기효율성,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통제소재 및 성격요인들과의 상관표

	일반적 자기효율성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통제소재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사려성	사회성
자아존중감	.59***									
성취동기	.46***	.27***								
통제소재	-.54***	-.46***	-.44***							
활동성	.04	-.32***	.11	.10						
지배성	.32***	.25***	.32***	-.19*	.50***					
안정성	.25***	.30***	.24***	-.36***	-.24***	.05				
충동성	-.09	-.16*	-.001	.23**	.58***	.34***	-.42***			
사려성	.50***	.29***	.33***	-.36***	.15	.45***	.25***	.01		
사회성	.37***	.27***	.31***	-.32***	.14	.12***	.45***	.02	.45***	
가족강도	.30***	.23***	.12	-.23**	-.03	.12	.20*	-.20*	.29***	0.17*

\* $p<.05$ , \*\* $p<.01$ , \*\*\* $p<.001$

표 8. 성격검사 하위요인들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에 대한 증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부분 R <sup>2</sup>	전체 R <sup>2</sup>	F
사려성	0.2713	0.2713	51.7479***
사회성	0.0351	0.3064	6.9831**
충동성	0.0064	0.3128	1.2851

\* $p<.05$ , \*\* $p<.01$ , \*\*\* $p<.001$

안정성 및 사회성과 함께 낮은 충동성을 갖도록 한다. 이와같은 결과는 높은 가족 강도를 갖는 가정의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다는 Stinnett와 DeFrain(1985)의 주장과 일관성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3) 언어과제와 공간과제의 자기효율성 상하수준과 두 가지 과제의 수행수준에 따른 네 집단의 비교

언어과제와 공간과제에 대한 아동의 자기효율

성을 증양치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고, 각 과제에 대한 아동의 수행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눈 다음, 언어과제와 공간과제에 있어서 자기효율성 점수와 수행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집단1), 자기효율성 점수는 높고 수행점수는 낮은 집단(집단2), 자기효율성 점수는 낮고 수행점수가 높은 집단(집단3), 그리고 자기효율성 점수와 수행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집단4)으로 구분하였다. 표 9는 각 집단의 언어과제와 공간과제에서의 일반적 자기효율성,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통제소재, 가족강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다.

표 9. 언어과제와 공간과제에서의 각 요인에 대한 네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언어	공간	언어	공간	언어	공간	언어	공간
일반적	M	3.81	3.80	3.71	3.63	3.29	3.21	3.27	3.42
자기효율성	SD	0.51	0/49	0.51	0.51	0.71	0.70	0.60	0.62
자아존중감	M	3.12	3.14	3.03	3.10	2.77	2.72	2.89	2.91
	SD	0.50	0.48	0.49	0.45	0.64	0.54	0.47	0.54
성취동기	M	11.50	11.46	12.54	11.96	10.76	10.64	10.58	11.22
	SD	2.70	2.61	2.01	2.36	2.28	3.05	2.98	2.53
통제소재	M	15.55	15.55	15.32	15.86	16.60	18.47	14.62	16.47
	SD	3.84	3.96	3.56	3.60	4.62	4.32	3.1	4.07
가족강도	M	53.72	53.81	51.57	52.47	50.53	47.33	48.69	51.18
	SD	7.64	7.16	7.16	7.75	8.29	8.58	8.83	8.38

표 10. 언어과제와 공간과제에서의 각 요인에 대한 단일변량분석결과

	언어적 과제의 F값	공간적 과제의 F값
일반적 자기효율성	10.34***	8.81***
자아존중감	3.64*	6.15***
성취동기	4.15**	1.25
통제소재	6.46***	4.63**
가족강도	2.85*	4.82**

\* $p < .05$ , \*\* $p < .01$ , \*\*\* $p < .001$

각 요인에 대해 단일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두가지 과제 모두 자아존중감, 통제소재 그리고 가족강도에서 유의한 집단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성취동기는 언어과제에서만 유의한 집단차이를 보였다.

집단간에 나타난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언어과제에서 자기효율성과 수행이 모두 높은 집단1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일반적 자기효율성, 자아존중감, 및 가족강도를 지니고 있었고 보다 내재적인 통제소재를

나타내었다. 자기효율성 수준은 높고 수행수준이 낮은 집단2는 가장 높은 성취동기를 지니고 있었고 나머지 요인들의 점수는 집단1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자기효율성은 낮고 수행수준이 높은 집단3은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자기효율성과 수행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4는 일반적 자기효율성은 물론 성취동기와 가족강도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가장 낮은 수준의 내재적 통제를 보이는 동시에 자아존중감 점수도

표 11. 언어과제와 공간과제에서의 각 요인에 대한 네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언어	공간	언어	공간	언어	공간	언어	공간
활동성	M	12.27	11.34	9.93	10.62	11.83	12.42	11.24	11.12
	SD	4.83	4.84	4.17	4.65	4.48	4.76	4.90	4.49
지배성	M	10.44	9.63	9.90	9.96	8.56	8.97	9.42	10.33
	SD	5.03	4.83	4.88	4.90	4.53	3.87	4.45	5.40
안정성	M	10.61	11.23	10.90	10.34	9.30	8.19	9.22	9.97
	SD	5.06	5.18	5.21	4.22	3.68	4.33	4.25	3.97
충동성	M	10.83	10.03	10.96	10.86	12.00	12.69	11.22	11.43
	SD	4.72	4.07	3.50	4.26	4.32	4.30	4.38	4.36
사려성	M	14.25	13.76	12.74	12.44	11.10	10.92	10.92	11.97
	SD	4.05	4.40	4.30	4.13	3.66	3.57	3.44	3.76
사회성	M	12.64	13.16	12.19	12.13	11.20	10.40	12.32	12.82
	SD	4.79	5.17	4.88	3.66	5.65	4.00	3.70	4.83

표 12. 언어과제와 공간과제에서의 각 요인에 대한 단일변량분석결과

	언어적 과제의 F값	공간적 과제의 F값
활동성	1.75	0.97
지배성	1.09	0.59
안정성	1.41	3.64*
충동성	0.50	3.21*
사려성	7.71***	4.15**
사회성	0.63	3.21*

\* $p < .05$ , \*\* $p < .01$ , \*\*\* $p < .001$

집단1이나 집단2보다 낮았다.

공간과제에서도 언어과제와 유사하게 자기효율성과 수행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1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일반적 자기효율성, 자아존중감, 내재적 통제 및 가족강도를 지니고 있었다. 자기효율성 수준은 낮고 수행수준이 높은 집단3은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의 내재적 통제와 가족강도를 지니고 있었다. 언어과제와는 상이하게 자기효율성과 수행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4보다 자기효율성 수준은 낮고 수행수준이 높은 집단3이 더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보였다.

성격점사의 하위요인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11과 표 12에 의하면 언어과제에서 자기효율성과 수행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1의 아동들이 가장 높은 사려성을 나타내었고 자기효율성과 수행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4의 아동들이 가장 낮은 사려성을 나타내었다. 공간과제에서도 집단1이 가장 높은 안정성, 사려성, 그리고 사회성을 지니고 있었고 가장 낮은 충동성을 지니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자기효율성 수준은 낮고 수행수준은 높은 집단3은 가장 높은 수준의 충동성과 가장 낮은 수준의 사려성 및 사회성을 나타내어 집단4보다 더 부정적 성격요인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결과는 과제특징적 자기효율성이 높은 집단1과 집단2의 아동들이 과제특징적 자기효율성이 낮은 집단3과 집단4의 아동들보다 더 바람직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이 갖는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특정한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이 아동의 수행은 물론 다양한 성격특성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시에 자기효율성이 낮은 집단3과 집단4중에서 언어과제에서는 집단4가 공간과제에서는 집단3이 더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므로써 과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기효율성 수준은 낮고 수행수준은 높은 집단3

의 아동들은 언어과제와 공간과제 모두에서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어 아동의 발달에서 자기효율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집단3과 집단4의 아동들에 관한 후속적 사례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들을 도울수 있는 적절한 치료방법의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 전체논의

본 연구의 결과로써 특정한 과제에 대해 발휘되는 개인의 자기효율성과 함께, 하나의 성격특성이나 전체적 구성개념으로서의 자기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갖는 일반적 자기효율성은 특정한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는 물론 미래의 노력 정도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바람직한 성격특성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높은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갖는 사람들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많고 그것을 지속하며 그 결과 다시 성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은 물론 다른 성격특성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데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Sherer 등의 자기효율성 척도는 대학생들이나 성인들에게만 사용되었으나 5점척도로 만들었음에 아동들에게도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었다.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들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체크해 봄으로써 그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자기효율성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해내느냐의 문제이다. Sherer와 그의 동료들은 수행성취에 초점을 맞춘 일반적 자기효율성 하위척도와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자기효율성 하위척도로써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Sherer등의 사회적 자기효율성 하위척도는 과제수행 상황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연구(Earley & Lituchy, 1991; Eden & Kinnar, 1991; Woodruff & Cashman, 1993)들은 물론 본 연구에서도 수행성취에 초점을 맞춘 일반적 자기효율성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여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논리적으로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은 모든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의 총합일 것이다. 그러나 Woodruff와 Cashman(1993)은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 사이에 영역 효율성(domain efficacy)의 존재를 가정하고 영역 효율성은 관련된 유형의 과제에 대한 과제특정적(task-specific) 자기효율성의 결합으로서 특정한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보다는 더 광의의 개념이고 일반적 자기효율성보다는 더 협의의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이란 몇개의 영역 효율성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율성이란 과제특정적 자기효율성이 발휘되기 전에 개인이 갖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기 때문에, Woodruff와 Cashman의 주장처럼, 영역 효율성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가 있는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선행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전체적 구성개념이라면, 그것을 측정해낼 수 있는 정교한 척도의 제작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일반적 자기효율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연구주제임이 분명하

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에게 실시된 가족강도 척도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미치는 가족체계의 영향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사용되었다. 부부 하위체계, 부모 하위체계, 부모-자녀 하위체계 및 개인적 하위체계로 구성되는 가족체계(Belsky, 1981)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것처럼 어머니와 아동, 아버지와 아동 혹은 형제자매의 이원적 관계로서 아동에게 영향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전체적 역동체계로서 아동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달심리학 연구는 가족체계의 역동을 고려하여 구성원들의 발달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태련과 장휘숙(1994). 발달심리학. 박영사.
- 장휘숙(1994). 발달심리학 연구에서의 중재와 조절 : 자기효율성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7, 1, 210-219.
- 장휘숙(1995).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자기 효율성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발표.
- Bandura, A.(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elsky, J.(1981). Early human experience :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4.
- Earley, P. C., & Lituchy, T. R.(1991). Delineating goal and efficacy effects : A test of three model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81-98.

- Eden, D. & Kinnar, J. (1991). Modeling Galatea : Boosting self-efficacy to increase volunteer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6, 770-780.
- Gist, M. E., & Mitchell, T. R.(1992). Self-efficacy :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 2, 183-211.
- Hyde, J. S., & Linn, M. C.(1988). Gender differences in verbal ability :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4, 53-69.
- Lennings, C. J. (1994). An evaluation of a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Person. Individ. Diff.*, 16, 5, 745-750.
- Linn, M. C., & Petersen, A. C.(1985). Emergence and characterization of sex differences in spatial ability :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1476-1498.
- Mossholder, K. W., Bedeian, A. G., & Armenakis, A. A.(1982). Group process-work outcome relationships : A note on the moderating impact of self-esteem.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5, 575-585.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Shelton, S. H.(1990). Developing the construct of general self-efficacy. *Psychological Reports*, 66, 987-994.
- Sherer, M. & Adams, C. H.(1983). Construct validation of the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3, 899-902.
- Sherer, M. &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tinnett, N. & DeFrain, J.(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 Tipton, R. M. & Worthington, E. L. Jr.(1984). The Measurement of generalized self-efficacy : A study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5.
- Weiner, B.(1974). *Cognitive views of human motivation*. N. Y. : Academic Press Inc.
- Woodruff, S. L. & Cashman, J. F.(1993). Task, domain, and general efficacy : A reexamination of the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72, 423-432.
- Zimmerman, B. J. & Martinez-Ponz, M.(1989).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51-59.

## **General Self—efficacy, Task—specific Self—efficacy and their related Variables.**

Hwee—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veal whether the general self—efficacy can work as a personality trait or a global construct. In study 1, with 227 college students, general self—efficacy and task—specific self—efficacy in driving, English conversation and golf were measured. After experimental operation, how does general self—efficacy influence to the expectation of credit in near future and the amount of endeavor for credit were tested. In study 2, with 167 elementary school children, general self—efficacy and task specific self—efficacy in verbal and spatial task, which solved by children afterwards, were measured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 same results with college students will be acquired. At the same time, children's self—esteem, achievement motivation, locus of control and other personality factors were measured. Because the task for task—specific self—efficacy is different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elementary ones, same results being acquired means that the relationship of general and task—specific self—efficacy will be examined more accurately. Analysis revealed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general self—efficacy and task—specific self—efficacy in both college students and children. Accordingly the general self—efficacy can exist as a personality traits because the general self—efficacy is correlated with the task—specific self—efficacy, which is given full play on the basis of general self—efficacy.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son with high general self—efficacy has expected higher level of credit and more endeavor for achieving the credit as well as higher level of the family strength than the one with low general self—efficacy. Then the person with high task—specific self—efficacy has high general self—efficacy and favorable personality traits regardless of performance.